

# 5念 익히면 생사해탈 얻어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4>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업이 나, 짓고 있는 업이나, 앞으로 지을 업이 착한 업인지 악한 업인지를 항상 살피서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라올라를 가르치기 위해 『라올경』에서 말씀하셨다. 팔관제에 있어서도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떳떳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이 계를 깨뜨리는 것은 무거운 죄악이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많은 잘못을 일으키는 재앙의 문이고, 팔관제 가운데 마지막 네 가지 계는 계율로 발원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허물을 경계한 것이다. 팔관제를 지키는 공덕에 대하여 『현우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복덕도 아반제라는 나라에 한 늙은 여자가 있었다. 여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맞고,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다. 이런 괴로움은 아기가 들수록 심해졌다. 그래서 여종은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강가에 나가 항아리에 물을 길던 여종은 실음이 북받쳐 산천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강가를 지나던 가전연 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다.

### 팔관제-2

"무슨 일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힘든 일은 더욱 많아지고 가난도 더해만 갑니다. 웃도, 먹도, 자는 것도 없기가 어렵습니다. 죽어도 해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안이병병해

진 여종은 존자에게 가난을 팔 수 있는 길을 물었다. 존자는 여종에게 발우를 주면서 말했다. "발우에 깨끗한 강물을 떠다 주시겠습니까?"  
존자는 여종이 정성을 다해 길어온 강물이 담긴 발우를 건네 받고 여종을 위해 축원을 하고 팔관제계의 계사(戒師)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는 마

를 묶어 숲 속에 버리게 했다. 죽어 하늘에 태어난 여종은 하늘나라에서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때마침 도리천에 머물던 사리불 존자가 그 태어난 여종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복을 지어 이 같은 하늘 세상에 태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천안봉

## 미움 버리고 부처님 생각한 여종 죄악 소멸돼 죽어 도솔천 태어나

음으로 일하고, 잠을 자고 숨을 내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면 문간에 들어가 깨끗한 풀을 깔고 앉아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온 여종은 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공덕으로 그 날밤 모진 목숨을 다해 도리천에 태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은 여종을 본 주인은 화를 버려 내면서 사람들을 시켜 풀로 다리

으로 여종의 지난 생을 살펴보았 다. 사리불 존자는 여종이 지난 생에 가전연 존자에게 팔관제계를 받아 지닌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리불 존자는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여종의 송장을 버린 숲 속으로 나아가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했다. 하늘 사람들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와 숲을 환하게 비추자, 이것을 본 여종의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왔다.

하늘나라 사람들이 죽은 여종에게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다.  
"이 여종은 더럽고 천한 계집 이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조차 싫어했는데, 지금 죽어 있는 몸통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여종의 몸통이에 깨끗 공양을 하십니까?"  
하늘 사람들은 여종이 도리천에 태어난 사경을 설명해 주었다. 공양을 마친 하늘 사람들은 곧바로 가전연 존자를 찾아가 계 법에 대해 깊은 법문을 듣고 저마다 수다원가를 얻었다.  
『불설재경』에 "팔관제계를 지키면서 다섯 가지 생각(五念:부처님, 법, 스님, 자성의 계, 하늘)을 익히는 것을 '불법의 재'라고 하는데, 이 재를 지키면 천신들과 같이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죄악을 소멸하고 선행이 생겨 나게 하며, 후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하였다. 팔관제계를 받아지키면 비록 천상에 태어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생사의 해탈을 얻게 되는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화합하여 공존하는 원리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자기 불성 깨닫고 해탈하는게 불교"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생의 복덕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불교의 현실을 보게 하는 단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기복불교란 구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 일까요. 이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불교를 향해 승가와 재가가 정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록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이 쇠약해 질 뿐 아니라 뻔뻔해지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바른불교를 향한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불교가 영원히 살길 있는 길입니다. 대부분 불자들은 그 길을 어렵게 생각하는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이 되어서 안됩니다.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한 것도 전 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순간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노소,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요. 수행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행위일 때 수행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탐구가 생활 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수행은 아무 공덕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공덕은 이러한 수행이 뒷받침 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은 수행을 어렵거나 특정한 것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行)·주(住)·좌(坐)·와(臥)가 곧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살아 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이 같은 철저한 수행을 할 때 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행하는 불자가 됩시다.  
정리=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경우스님 (총주 신홍사 주지)

복·극락 구하기 보다  
지금 나의 문제 풀기위해  
수행해야 올바른 불자

## 서양눈에 맞춘 불교 '대중화 바람'

구소련 붕괴후 발틱해 연안국가운데 불교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이 에스토니아이다. 이곳에 불교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30년대 초, 티베트불교 계류에서 에스토니아인 법사를 에스토니아 불교당으로 임명, 불교 정착을 시도할 때부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지배로 유명무실해져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후 1988년부터 독일과 영국의 상좌부 불교계 단체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에스토니아 불교의 서막이 올랐다.

이 서막을 올린 곳은 수도 탈린이다. 바로 이곳에서 에스토니아 불교계의 기동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불교회(Estonia Buddhist Society)가 태동한 것이다. 특히 불교회가 정부로부터 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되었던 1992년은 에스토니아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불교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관련 서적·잡지를 번역·출판하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을 초청해 강연회와 법회를 활발히 전개했다.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탈린에 연꽃

## 세계의 불교학 <24> 에스토니아

이 땅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회의 활동과 그 영향력은 법당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율 법당'이라고 불리는 이 법당은 주중에도 늘 개방되어 있는데, 평균 70여 명의 신자들이 스스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은 불교 교유의 수행만 행하지

## 1930년대 티베트불교 전래...92년 공인 동양의학·무술·풍수 찾는 사람 많아

는 것이 아니다. 자율 법당은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고 때때로 강좌를 개설하는 배움의 장이다. 그래서 이 법당을 찾는 에스토니아인 가운데에는 동양의학과 무술 심지어는 풍수에 관심 있는 불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에스토니아에서 서양불교도교우회(FWBO)가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는 탈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양불교도교우회는 탈린 시내 중심에 법당을 마련해 놓고 주말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이 단체는 서양에 전해진 불교를 서양인에 맞게 재해석해 불교의 지변을 확대시키

고 있어 명실공히 국제적 단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쪽에서 전해진 불교가 서양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1993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이곳을 비공식 방문했는데, 이 일은 에스토니아인들의 마음에 불심의



◇티베트불교 법사에게 수계를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 여성들.

배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높아졌고, 티베트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티베트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자층가는 탈린 근교에 탐을 건립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에스토니아의 불교는 명문 따르부대학 동양학과에서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티베트의 교육·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티베트 문화를 연구 소개하는 비영리 학술 단체 '에스토니아-티베트문화회'가 설립되는 등 학계와 민간연구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97년 3월에 창립된 '에스토니아-티베트문화회'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티베트학과장인 타람 툴쿠(Tarab Tulku) 스님과 러시아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티베트와 러시아 불교에 관한 강연 등을 주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임제선 계통의 참선모임도 있다. 불교하나 서양 불교도교우회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웃 나라인 핀란드 헬싱키의 선센터로 오가며 수행을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갓바위, 소연성취

#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지정된 증명불사 기증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드립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쯤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열이 담긴

# 승복·법복 보급안니

- 전통의 고증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 자가드 제직 최신 입체공법으로 된단 생산.
- 면 60수 2함 폼사 폴리 에스테르 결합(통풍, 촉감 우수)
- 옴, 연꽃, 만자 문양 처리로 미적 감각이 뛰어남.
- 정전기 방지(유해 잔지파 차단)

스님께 가서 불사 보시하면 +불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채 팔관을 소멸함.

특별보급가격	
상, 하	남:85,000 여:80,000
긴 조끼	남:85,000 여:8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표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승복·법복의 대명사 **"수례비귀"**  
제조 공급원: 기원 승복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55-9889/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 추·사·법·서·선·집·전 7권

드디어 출간!!

# 秋史선생 學藝術 집대성

▶서울 강남구 수도산 풍은사 (추사선생 죽기 3일전 쓴 글씨) ▶세한도

▶보급가 : ₩230,000  
→ 특별보급가격 ₩200,000원

【특징】

- 추사선생의 작품을 원로 서예가 김승호(73세)선생이 2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편찬하였다.
- 전편 추사해설집, 예서첩 상, 하 등 5권 과 후편 추사화집, 서적정동 전, 후편 모두 총 7권과 9책으로 1,46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어있다.
- 최초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學藝術을 집대성한 책으로써 서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추사의 고결한 정신과 서한에서 체계화한 선생의 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필독 지침서이다

※ 전화 구입 문의시 안내 소책자 발송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615-21-0517-898 이 민택

구입문의 : (053)982-4976/011)813-3679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추사법서 보급원